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5일 목요일 음 3월 21일 (13돌)

기상정보

구름 많음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쪽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으므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고기온은 13-15°C, 낮 최고기온은 19-20°C가 되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and cloud cover.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and sunset.

Table with 2 columns: 주간예보,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few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월드뉴스

미중 무역협상 30일 베이징서 재개

막바지 담판 주목

다음 달 초 무역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부터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막바지 진검승부를 벌인다.



지난 2017년 11월 만난 미중 정상.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이 오는 30일과 내달 8일 각각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대면 협상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오는 30일 시작되는 협상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내달 8일 시작되는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강제 기술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 서비스, 구매, 이행을 포함한 무역 현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시장 진입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 해결, 농산물 구매 확대와 비관세 장벽 철폐, 무역 합의 이행 안전장치 설정 등 핵심 쟁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앞서 미 주요 언론들은 미·중 무역 협상단이 이르면 내달 초 협상을 타결 짓고 5월 말 또는 6월 초 양국 정상이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 말과 내달 초 고위급 대면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김태운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 통신 전파를 송출하였다. 5G는 5세대 통신이란 의미로, 지금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는 LTE(Long Term Evolution) 4세대를 뛰어넘는 통신이다.

5G의 '데이터 통신 속도'는 4G에 비해 200배 빠르다고 한다.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실제 동작에 반영되는 시간을 '지연시간'이라 한다. 이론적으로 4G의 지연시간을 100분의 1초 수준인데, 5G의 지연시간은 20,000분의 1초라는 의미이다. 결국, 5G 통신으로 대용량의 콘텐츠를 거의 실

가상현실(VR)과 호랑나비 꿈

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지연시간'으로 문제가 되던 '자율주행, VR/AR, 스마트시티 등 5G 관련 산업과 인프라가 끊임없이 발전하며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상현실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될 때 과연 우리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물론 긍정과 부정의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5G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지만, 5G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장자(莊子)의 호랑나비 꿈(胡蝶夢) 이야기가 떠오른다. 장자를 몽접주인(夢蝶主人, 호랑나비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화창한 봄날 장주는 깜빡 낮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장주는 호랑나비가 되어, 이 꽃 저 꽃을 활활 날아다니며 너무나 자유로웠다. 꿈속에서

장주는 자신이 호랑나비라고만 알았지 장주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은 꿈 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호랑나비가 아니라 분명 장주라는 사실을 알았다. 장주는 자신이 호랑나비의 꿈을 꾸는 건지, 호랑나비가 장주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장주가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던 것처럼 5G 시대에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주체이고,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을 객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주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누가 주체이고 객체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장주 자신이 주체이고 호랑나비를 객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있을 때에는 분명 호랑나비가 주체이고 장주는 객체일 수밖에 없다. 꿈과 현실,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알 수 없

을 때에는 주체와 객체에 대한 관계 설정이 모호하게 된다. 또한 꿈속의 호랑나비와 현실의 장주가 동일한 하나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동안 구분하던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해체되어 버린다. 즉, 장주가 호랑나비이고, 호랑나비가 꿈 장주일 수밖에 없다.

주체와 객체가 하나라고 생각할 때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장주의 호점몽에서처럼, 누군가가 가상현실 속의 자신과 현실 속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가 가상현실(꿈)이며, 우리가 사후에 맞이하게 될 그 세계가 본질사회(현실)인지도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가상현실이든 현실이든 어디에서든 자신의 삶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인식과 행동이 필요할 뿐이다.

열린마당

“다같이 책보러 도서관에 가게마음”



오태수 한라도서관 운영과장

책은 모든 사람의 벗이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남녀노소, 특별한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항상 사람 곁에 있기를 좋아한다. 책이란 벗은 사람과 달리 배신하지않고 유일하게 사람과 이별을 하지 않는 특별한 관계이다. 그래서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으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는 싫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시적 흥미유발의 매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도서관은 이용객이 3년전에 비해 46%가 감소한 99만 6000명이고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은 20%가 감소한 160만명, 제주한라도서관은 36%가 감소한 27만9000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멋지고 폼나는 공직자의 청렴



박정화 서귀포시 동흥동행정복지센터

'청백리'는 관직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이다. 청빈한 생활태도를 유지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봉공하는 자세를 흠뜨리지 않으며, 백성들을 마치 부모처럼 어루만지는 선비의 전형이다.

조선시대,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27명의 임금이 다스린 519년 동안이 바로 조선시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공직자의 청렴을 논할 때면 늘 버릇처럼 '청백리'를 입에 올리는 한다.

그렇다면 청렴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토록 당연한 것을 어떻게 강조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그저 청빈하면

되는 것일까. "공무원 6년차인 나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월급만 받고는 평생 가야 집한 채 장만하지 못하겠구나" 싶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 어떤 직장인도 집한 채 장만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빈, 청백리'라는 조선시대 단어는 더 이상 현대의 공직자 청렴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바로 '멋진 공무원'이다. 넉넉지 않은 월급으로 집장만을 평생의 목표로 산다고 할지라도 밥 한 끼, 술 한 잔을 누군가로부터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말 그대로 세금을 운영되는 청사의 전기, 물, 종이 한 장을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가짐, 그리고 직위를 이용하여 눈 앞에 사사로운 이익을 거저 얻어보려는 뻔뻔한 빈대근성을 떨쳐내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한다.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아닌 '시민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멋지고 폼나는 '진짜 청렴'된 공직자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IDER advertisement for a 15% discount event. Includes images of models in sportswear and promotional text.